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세명전기공업(017510)

소재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최지인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전기공업(017510)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 기반으로 성장하는 금구류 제조 전문기업

기업정보(2020/07/31 기준)

대표자	권재기/권철현
설립일자	1984년 02월 03일
상장일자	1991년 12월 2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송배전선로용 금구류 외

■ 전력산업 및 철도산업에 이바지한 금구류 제조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은 금구류를 개발·설계·생산하는 기업으로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송배전선로 및 전차선로용 금구류 등을 제조하고 있다. 154kV, 345kV, 765kV용 송전금구류의 자체 개발로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특수경간 애자장치 가설금구류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양질의 전력수송에 이바지하고 있다. 송배전선로용 금구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차선로용 금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산화에 성공하여 5대 광역시 지하철 및 철도공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주조, 단조 및 가공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섬유기기 부품(색셔날빔)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시세정보(2020/11/09 기준)

현재가(원)	3,85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588
발행주식수	15,246,000
52주 최고가(원)	5,590
52주 최저가(원)	2,015
외국인지분율	1.84%
주요주주	권철현

■ 꾸준한 품질 강화 및 기술 내재화로 인한 긍정적인 매출 전망

국내 전력수요 증대에 따라 HVDC(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500kV 대용량 송전선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고압 전기선로 설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금구류의 수요는 증가 될 예정이다. 세명전기공업은 한국전력공사의 Trusted Partner 기업으로 신송전선 금구류 개발로 인해 매출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정부의 고속전철화 지원사업으로 국내 철도선로용 금구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 위주의 섬유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섬유기기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명문장수기업 선정 및 '동북아 슈퍼그리드' 겨냥한 기술개발

50년 이상 쌓아온 뿌리 깊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 3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8GW의 대용량 송전선로로 건설될 신한울~신기평 HVD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이 기술개발이 성공할 시, 국가 기간 전력계통연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겨냥할 수 있어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208.7	25.5	39.6	19.0	36.7	17.6	5.7	4.9	14.7	241	4,318	23.7	1.3
2018	190.2	(8.9)	32.8	17.2	36.0	18.9	5.3	4.7	14.2	236	4,538	29.7	1.6
2019	184.5	(3.0)	16.7	9.1	34.2	18.5	4.9	4.3	14.6	224	4,681	21.6	1.0

기업경쟁력

송배전 및 전차선로용 금구류 전문기업

- 권재기/권철현 각자대표 리더십 아래 품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50년 이상 업력의 금구류 전문기업
- 정밀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및 철도산업 선진화에 기여

주요 고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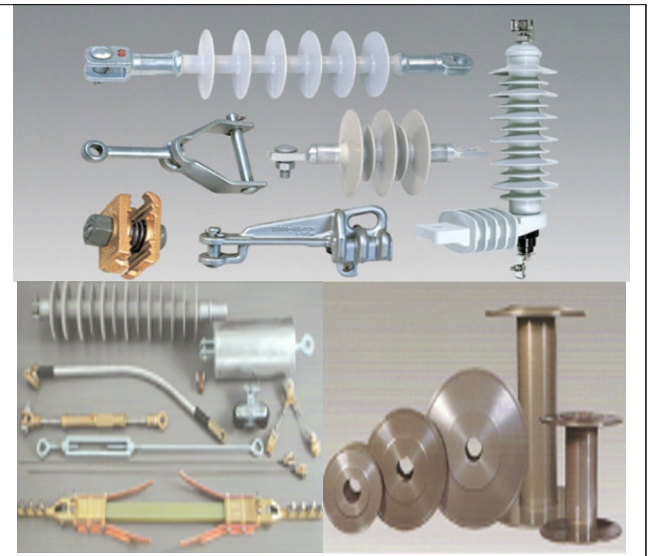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송배전용 금구류 개발
- 전차선로용 금구류 국산화 개발 성공
- 섬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 기술 적용

보유 기술 기반에 둔 다양한 제품군 보유



시장경쟁력

국내 경쟁 기업

- 애자 및 철탑 부분품 주요 기업

제룡산업

보성파워텍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산업 특징

- 기술집약적 산업
- 국가 기간산업
-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최근 변동사항

금구류 기술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

- 뿌리 깊은 기술 내재화로 명문장수기업 선정
- 대만전력청 금구류 공급 및 터키, 인도 등 섬유기기 납품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겨냥

- 한국전기연구원과 8GW의 대용량 송전선로 신한울 ~ 신가평 HVDC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진출시도

I. 기업현황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금구류 전문기업

동사는 금구류를 개발·설계·생산하는 기업으로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송배전선로 및 전차선로용 금구류를 국산화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를 넘어서 대만,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개요

세명전기공업(이하 동사)의 전신은 세명전업상사이며,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설립되었다. 이후, 1984년 2월 세명전기공업(주)로 상호명 변경 및 법인 전환하였으며, 1991년 12월 1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송배전선로용의 금구류이며,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수용가까지 운반하기 위한 전력선의 구성 부분품으로 철탁, 애자 등을 고강도로 연결하는 기구이다. 154kV, 345kV, 765kV용 송전금구류의 자체 개발로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특수경간 애자장치 가설금구류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양질의 전력수송에 이바지하고 있다. 송배전선로용 금구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차선로용 금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산화에 성공하여 5대 광역시 지하철 및 철도공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주조, 단조 및 가공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섬유기기 부품(색셔날빔)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동사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산업과 철도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과 품질을 확보하며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주주 현황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권철현 각자대표이사로 동사의 지분 1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8.8%, 그 외 기타 소액 주주 지분이 61.2% 이다.

표 1. 사업별 지배 및 종속회사

주요주주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지분율(%)
권철현	본인	15.7%
권재기	본인	1.1%
권재룡	특수관계인	4.4%
이정화	특수관계인	1.2%
권태균	특수관계인	8.5%
김나영	특수관계인	5.1%
권태형	특수관계인	2.8%
기타 소액주주	기타	61.2%

*출처: 2분기 공시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권재기 각자대표이사는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EO)이다. 1962년 4월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철현 각자대표이사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MBA를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9년 3월부터 경영총괄 담당자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높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 조직 구성

국내 사업장의 조직 구성은 권철현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임원진과 품질보증부, 영업부, 자재부, 부산생산부, 창원생산부, 총무부로 나뉘며, 각 부서는 업무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부산과 창원에 위치한 생산부는 생산지원팀, 주조팀, 가공팀, 단조팀, 조립팀, 설비관리팀, 공무반으로 분류된다. 동사는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04년 7월에 인정받아 선행 및 후속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1. 조직 구성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사업장

본사 및 연구소는 부산 사상구에 소재하며, 전략적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창원시 소재의 공장은 생산설비와 첨단 분석설비를 보유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2. 주요 사업장



부산 본사



서울 사무소



부산미음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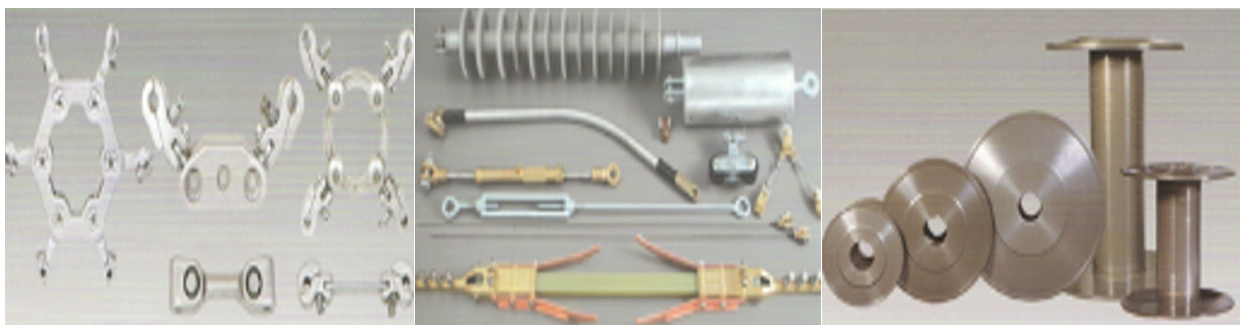
창원공장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주요 사업

동사의 주력사업은 크게 송배전선로 금구류와 섬유직기용 섹셔널빔으로 분류된다. 특고압에 해당되는 154kV 송전선 금구류를 국내 최초 개발하여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 345kV, 765kV의 금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전선로용 철탍 등의 국산화를 이끌었다. 또한, 전철용 터널 브라켓 등의 부품 개발과 전철용 자동장력 조정장치를 개발하여 경부고속철도(KTX) 국내 도입에 기여하였다. 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기기의 섹셔널빔을 상용화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림 3. 주요 생산제품



송배전 금구

전철용 금구

섬유직기용 섹셔널빔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현황

동사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우수한 기술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ZTACIR310 금구류를 개발하였으며, '중동향 연질알루미늄 복합 소재 고강도 LSCC(Low Sag Composite-core Conductor)용 금구류 개발', '송전선 압축인류클램프용 접속단자, 점퍼터미널 수축공 품질개선을 위한 주조 금형 개발'에 관한 국책과제를 수행했다. [표 2]는 동사의 최근 3년 연구개발 현황이다.

표 2. 최근 3년 연구개발 현황

수행연도	연구과제	진행 상태
2020년도	용량증대 알루미늄 연선용 금구류 개발	개발 진행중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개발	개발 진행중
	전차선로용 드로퍼클램프 개발	개발 진행중
2019년도	연질알루미늄복합소재 고강도 전선용 금구류 개발	개발 진행중
	ZTACIR310 금구류 개발	개발완료
2018년도	500kV HVDC용 금구류 개발	개발 진행중

*출처: 2분기 공시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1건의 특허등록, 1건의 실용신안 등록과 4건의 국내 특허출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외에도 상표권 11건과 디자인 5건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대해 가고 있다.

표 3. 동사의 특허 현황

구분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등록	10-1119672	6도체 볼트리스 스페이서댐퍼
실용신안 등록	20-0492188	전선용 스페이서
특허출원	10-2015-0169170	배전선로의 중성선용 접지 클램프
	10-2019-0006190	인류클램프
	20-2019-0001432	전선용 현수클램프
	20-2018-0003160	전선용 스톱브리지 댐퍼

*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전력 응용분야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송배전 금구류 산업

동사의 핵심 사업인 송배전 금구류 산업은 전력 응용분야 산업으로, 송배전 및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산업과 연관이 깊다. 이 외에도 기술집약적이며 전방 산업과 연관이 깊은 섬유기계 산업에 적용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본 시장 동향에서는 세명전기공업의 주 사업인 송배전선로 및 전차선로용 금구류의 상위 산업인 전력 산업과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시장, 섬유기계 산업과 시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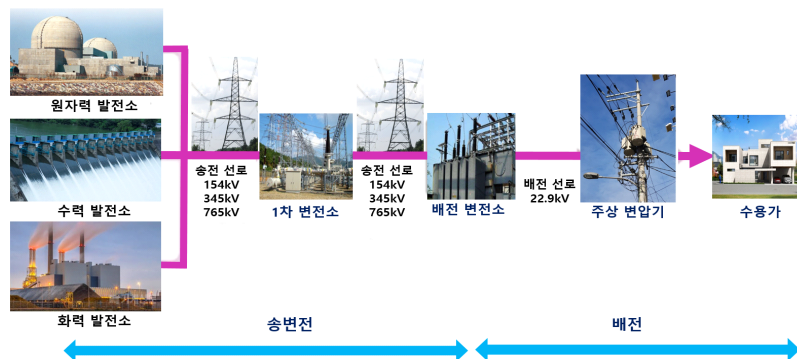
■ 전력 산업 개요

전력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 활동 및 국민 기초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며,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전력 계통이란 전기가 생산된 곳에서 사용하는 곳까지 연결된 시스템을 말하는데,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으로 얻은 1차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주면,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계통을 따라 이동한다. 송전계통은 발전소와 나머지 전력 계통을 연결해주는 송전선로와 송전선로를 지지해주는 송전 철탑 그리고 송전용 변전소로 구성되며, 송전용 변전소에서는 154kV, 345kV, 765kV까지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송압한 전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154kV, 345kV, 765kV를 22.9kV까지 감압하여 수용가로 공급한다.

동사의 주력 사업인 송배전선로용 금구류 제품은 송전 및 배전설비 완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생산 제품인 애자장치·가공지선·피뢰기 설치장치 금구류 등은 송배전 계통의 원활한 동작을 돕는 제품으로 송변전 및 배전계통에 해당된다.

그림 4. 전력 계통도



출처: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시장 현황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은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에 해당되고, 애자류는 송전선 등에서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구를 통칭한다. 동 산업은 규제가 없어 시장진입이 용이하며, 개발도상국에서 대형의 전원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초고압송전용 현수 애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절연물의 오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신소재로 개발된 애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시장의 특징은 1) 기술적 요소의 영향이 큰 산업, 2) 안전성이 우수한 산업, 3) 전력 응용분야 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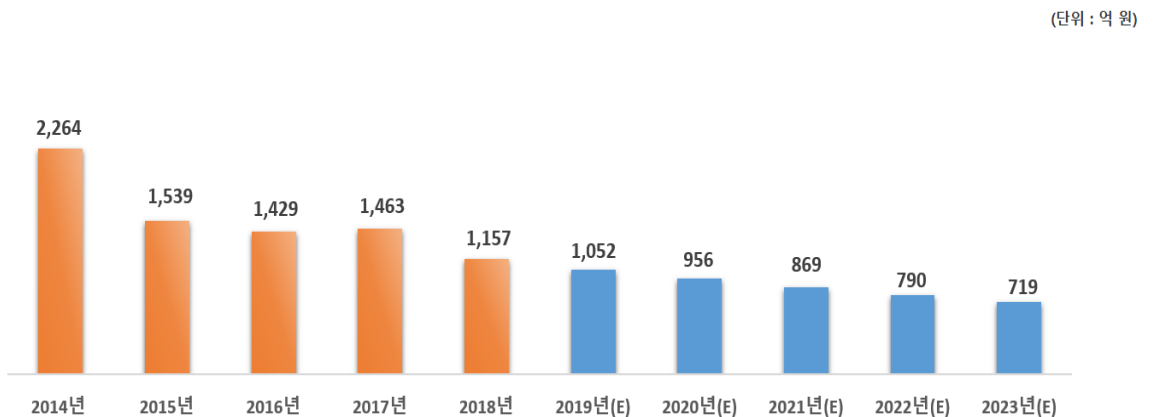
표 4.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시장의 특징

특징	내용
기술적 요소의 영향이 큰 산업	기존 자기 애자에서 폴리머 애자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국산화되고 다수의 국내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안전성이 우수한 산업	애자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송배전 관련된 산업에 속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산업임.
전력 응용분야	동 제품은 주로 전력분야에 한정하여 활용될 것이나, 절연재료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전자분야에 활용이 가능함.

*출처: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8-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시장은 2015년 1,539억 원에서 2018년 1,157억 원으로 연평균 9.08% 감소하였으며, 동 CAGR을 적용시 2023년에는 719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시장



■ **섬유기계 산업 개요**

섬유기계는 의류 및 산업용 섬유공업에 쓰이는 소재 생산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에 사용되는 기계를 의미하며, 방적기, 제작기, 봉제기, 염색기, 가공기가 있다. 섬유기계 부품으로는 고무제품, 보빈, 벨트, 베어링, 제어기, 스프링, 롤러(섹셔널빔), 전원 공급기 등이 있다. 섬유기계는 고속, 고기능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며, 자동제어 기능과 공정간 연속성이 강조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섬유기계 산업의 특징은 1) 다품종 주문생산 산업, 2) 기술집약적 산업, 3) 전방산업에 대한 높은 종속성 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 섬유기계 산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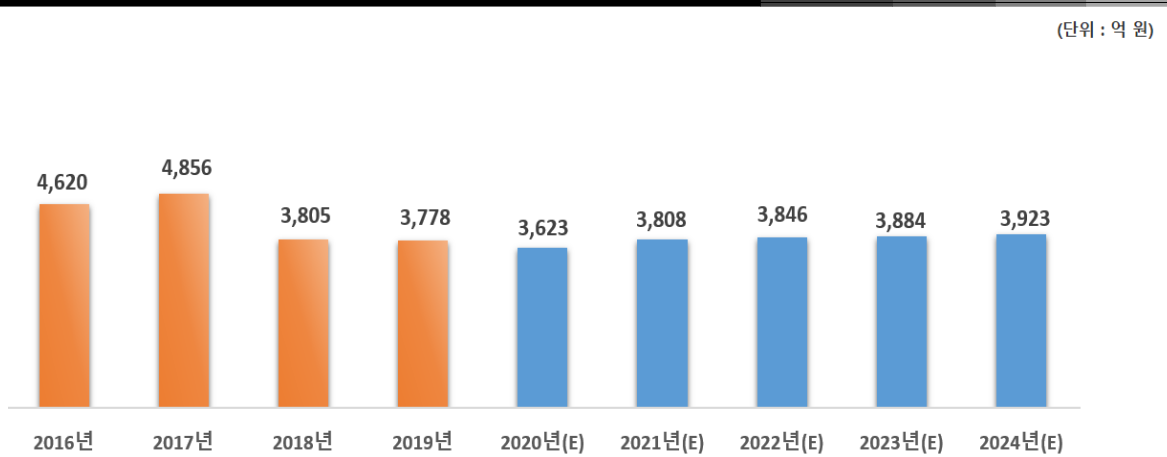
특징	내용
다품종 주문생산 산업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타 회사 제품과의 기술적 특화가 중요함. 대량생산체제보다는 소규모의 전문인력 기반으로 생산하는 체제가 발달하여 기업 단위가 매우 영세한 특성을 나타냄
기술 집약적 산업	각 분야에 대한 후발국의 기술습득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갖는 선진기업들이 오랫동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임.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수요처의 생산품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 차별화가 요구됨.
전방산업에 대한 높은 종속성 산업	수요산업인 섬유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보완적인 형태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섬유산업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출처: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8-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섬유기계 시장 현황

국내 섬유기계 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반 이후 주요 수요산업인 의류 시장의 성장 정체로 인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섬유기계 시장은 2016년 4,620억 원에서 연평균 -6.5% 감소하여 2019년 3,778억 원 규모이며, 2019년 이후 연평균 0.8% 성장하여 2024년에는 3,923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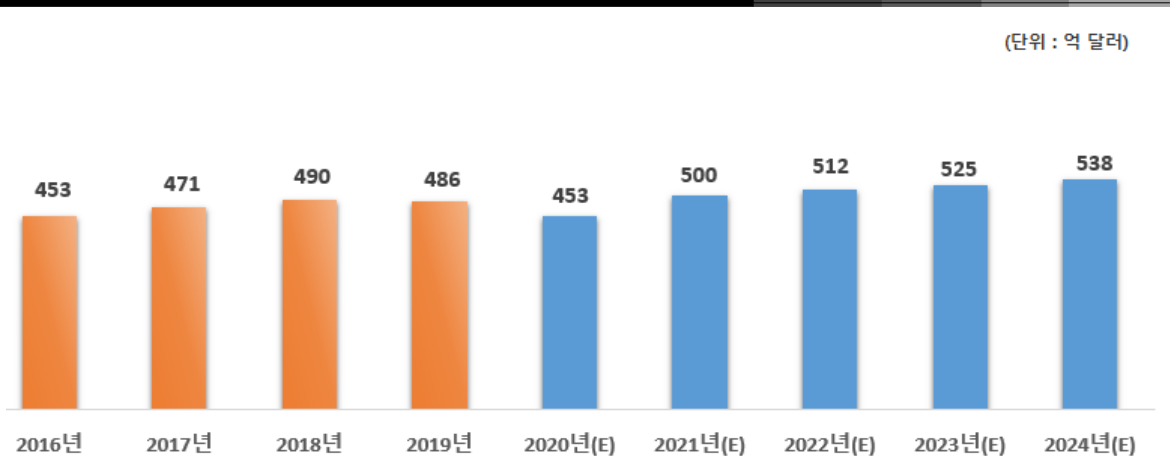
그림 6. 국내 섬유기계 시장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세계 섬유기계 시장은 선진메이커들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틈새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2017-2019)에 따르면, 세계 섬유기계 시장은 2016년 45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4% 성장하여 2019년 486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2019년 이후 연평균 2% 성장하여 2024년에는 538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7. 세계 섬유기계 시장



출처: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2017-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Ⅲ.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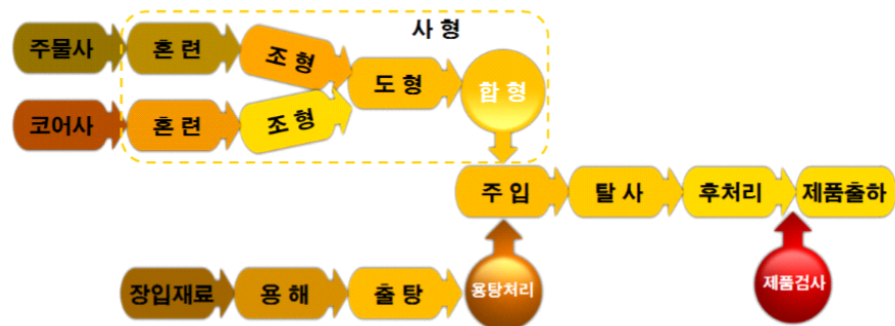
정밀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송배전선로 및 전차선로용 금구류 기술경쟁력 확보

내공이 깊은 정밀주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기자재의 핵심 요소인 송배전선로용 및 전차선로용 금구류를 개발하였으며, 이 외에도 형단조, 특수강단조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소재 산업에 적용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 주조 정의 및 특징

금구류 제조의 핵심기술은 주조 기술이다. 주조는 금속재료를 노 내에 장입하여 용융 상태로 만든 후 목적하는 형상의 반대 형상 공간을 갖는 주형(모래, 세라믹 또는 금속재) 속에 주입, 응고시켜 미리 설계된 형상의 금속을 제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주조는 공정기술, 소재, 주형의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공정기술에 따라 사형주조, 다이캐스팅, 정밀주조, 특수주조법으로 구분되며, 주형의 형태에 따라 소모성 주형 주조와 영구주형 주조로 분류된다. 소재에 따라 크게 철계와 비철계로 구분되며, 철계는 다시 주철과 주강으로 분류되고 비철계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8. 주조 생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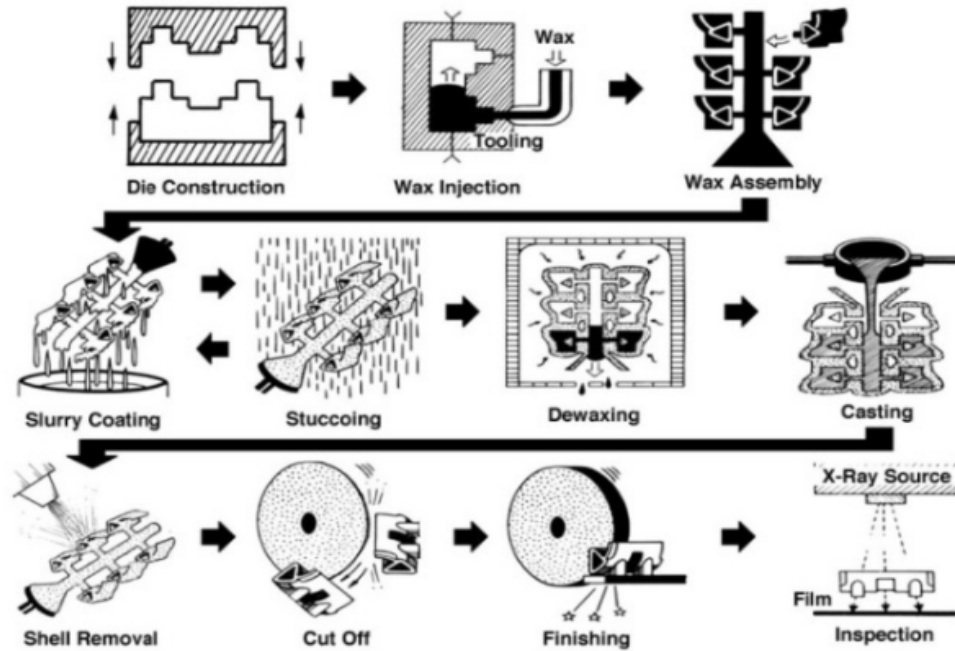
*출처: 신편 주조공학(2007),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주조는 동일형상의 제품을 고속 생산할 수 있고, 복잡한 형상 제작이 용이하며, 소성가공이나 절삭가공이 곤란한 금속합금에도 적용된다. 또한, 크기 및 무게의 제한을 받지 않아 소형, 대형물을 일체로 제작이 가능하며 소재의 종류, 최종 제품의 형태 등에 따라 여러 주조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주조 기술은 자동차, 조선, 공작기계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어 산업분야 등 기초소재산업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금구류 생산 핵심기술, 정밀주조

정밀주조는 주형 내의 용탕에 압력을 가하거나 정밀 주형에서의 정밀도가 높은 주물을 얻는 주조법으로 정밀주조의 소재는 강을 포함하여 초내열합금, Ti 합금, Mg 합금 등 모든 금속소재가 해당된다. 정밀주조는 설계 유연성이 좋고, 철계 및 비철계 합금에 걸쳐 폭넓은 적용성을 보이며 정밀한 재현성 및 높은 치수 정밀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림 9. 정밀주조 세부 공정



*출처: KIMS재료연구소(소재기술백서 2011)

■ 정밀주조 기반의 제품 개발 및 품질역량 보유

50년 이상 축적해 온 금속가공 및 정밀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용 및 철도용 금구류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위해 다양한 자체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압축, 인장 등의 기계적인 강도시험과 동브라켓 진동피로 실증시험, 도르래식 자동장력 조절장치 작동시험, 도르래 하중시험, 곡선당김금구 내인장 시험 등의 품질 검수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0. 동사의 다양한 품질 테스트



▲가동브라켓 진동피로 실증시험

▲도르래식 자동장력 조절장치 작동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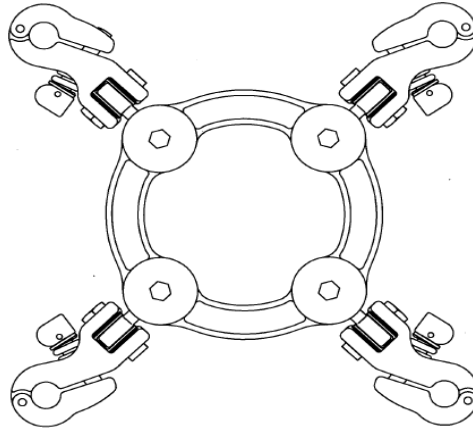
▲도르래 하중시험

▲곡선당김금구 내인장 시험

*출처: 동사의 카달로그

동사의 정밀주조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인 ‘다도체 송전선로 스페이서 댐퍼’는 송전선로에서 송전선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송전선에 가해지는 진동 등을 흡수 완화시킨 제품이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클램프 암과 본체 프레임 사이에 선로방향의 진동 및 변위 시전선에 미치는 휨응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림 11. 다도체 송전선로 스페이서 댐퍼



*출처: 디자인 등록(30-0459903),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단조 정의 및 분류

단조는 일반적으로 금형 사용 여부와 작업 온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금형 사용 여부에 따라 자유단조(Free Forging)와 형단조(Die Forging)로 구분되며, 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Hot Forging), 냉간단조(Cold Forging), 온간단조(Warm Forging)로 구분된다. 그 외 공정 특성에 따라 롤단조, 궤도단조, 회전단조, 링롤링, 유동성형 등의 기술은 특수단조로 분류된다.

표 6. 단조기술의 분류

분류기준	종류	내용 및 특징
금형 사용여부	자유단조	·평평하거나 간단한 형상의 엔빌 사용, 소재는 성형 중 구속받지 않음. ·주로 선박이나 발전기의 대형 부품 제조 공정에 적용됨.
	형단조	·일정 형상을 갖는 금형 내에 소재를 넣고 가압하여 금형 형상으로 성형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 제품 생산에 주로 적용
작업온도	열간단조	·소재가 재결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단조하는 방법 ·변형 저항이 적어 단조가 용이하나 스케일에 의한 거친 표면과 치수공차 발생의 단점이 있음.
	냉간단조	·상온에서 단조를 수행, 고정밀도, 고강도 제품의 단조에 적용 ·열간단조에 비해 치수정밀도가 높고 표면이 깨끗한 제품을 얻을 수 있으나 단조에 필요한 동력이 더 많이 소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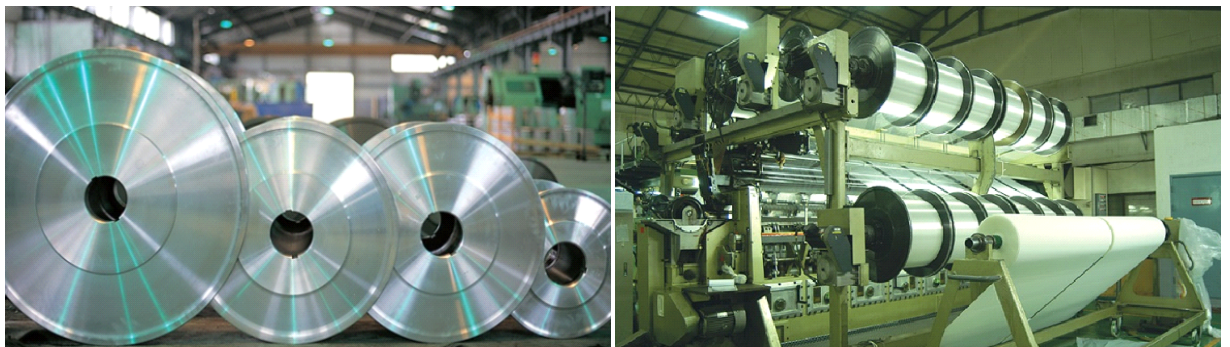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8-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 제품 생산방법인 형단조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하여 섬유기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산업의 핵심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 섬유기기의 섹셔널빔 상용화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91년 직기용 섬유기기의 섹셔널빔 개발에 성공하였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재와 알루미늄 합금강 고압 압출 파이프를 아르곤 용접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섹셔널빔을 제조하고 있으며, 21인치, 30인치, 40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상용화하였다.

그림 12. 섹셔널빔 제품 및 생산설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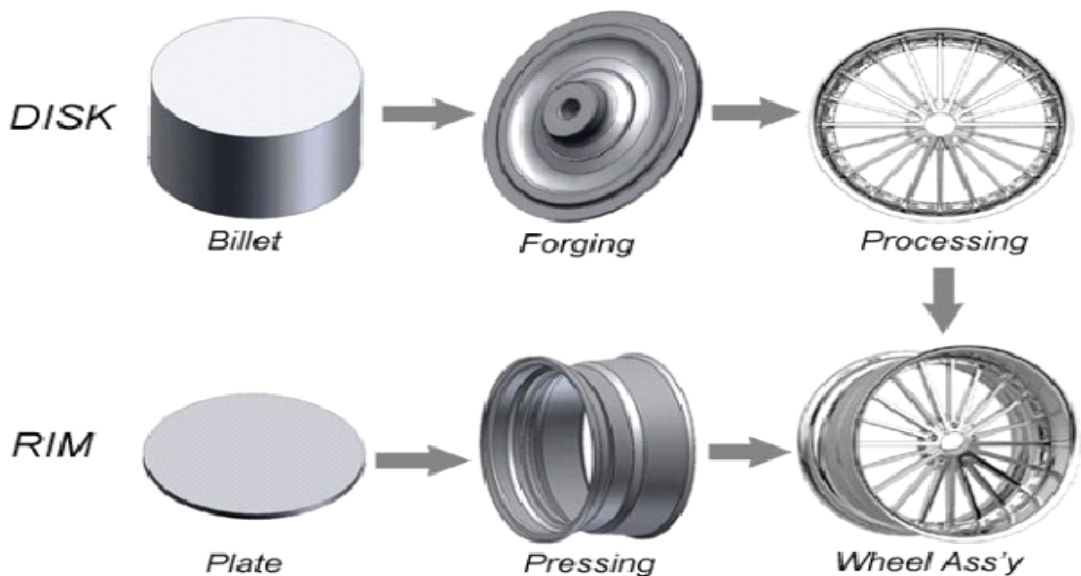


*출처: 동사의 홈페이지

■ 알루미늄 합금 형단조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

동사는 대형 알루미늄 합금 형단조를 응용하여 티타늄, 니켈, 초합금 소재를 적용시킨 자동차 단조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티타늄 및 니켈은 엔진부품을 경량화할 수 있는 소재로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단조휠을 개발하여 제동성과 안전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알루미늄 합금 단조휠 생산 공정



*출처: 동사의 홈페이지

■ SWOT 분석

그림 14.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ength Point) 대량생산 체계 및 품질 프로세스 구축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금구류 개발·설계 및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제품 단가 하락 및 고객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ISO/TS 1694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자체 품질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다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Opportunity Point) 정부의 뿌리 산업 지원 정책

최근 범국가적으로 주조 등의 뿌리 산업에 대한 진흥과 첨단화를 위해 법률제정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사에서도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등 정부 지원과 맞물린 경영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전기전자, 중공업 등의 전통산업 외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 (Weakness Point) 기술 고도화로 인한 인력수급 어려움 및 신성장 동력 발굴 필요

동사의 보유 기술은 공정에 따른 주조, 단조 등 금속가공 기술로 기술집약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에, 개발 인력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인력수급 유동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동사는 동종업계에서 오래 근무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전방산업의 기술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철도산업 이외의 시장진입이 다소 한정적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섬유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 (Threat Point)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어려움

동사의 주력제품인 송배전용 금구류는 국내 전국 전력망에 이미 적용된 상황이라 노후 부품의 교체 수요 외에는 시장이 거의 없으므로 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만 전력청에 345kV 금구류를 공급하고 있고, 터키·인도네시아 등 섬유 직기용 기기를 납품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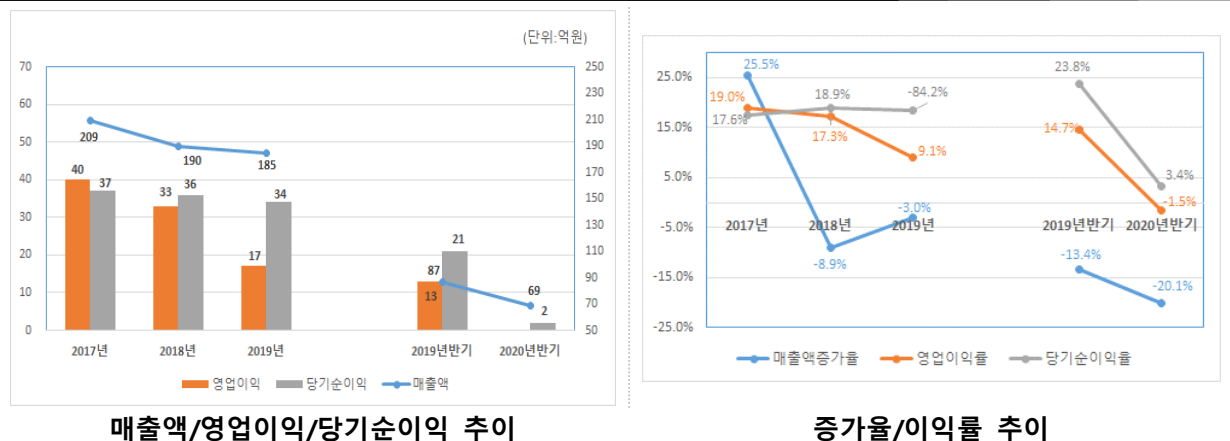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위

동사는 1962년 창립되어 50년 이상 축적된 주조, 단조 및 가공기술 노하우와 송배전선용 금구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S전선 등을 고정 거래처로 확보하여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금구류 부품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매출 주도

동사는 송,배전선로 가설과 철도 전차선로에 사용되는 금구류와 섬유직기용 섹셔널빔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중이며, 2019년 금구류 부문 매출이 152억 원(총 매출의 82.3%)으로 섹셔널빔 부문 매출이 33억 원(총 매출의 17.7%)대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 위주의 섬유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섬유기기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5.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개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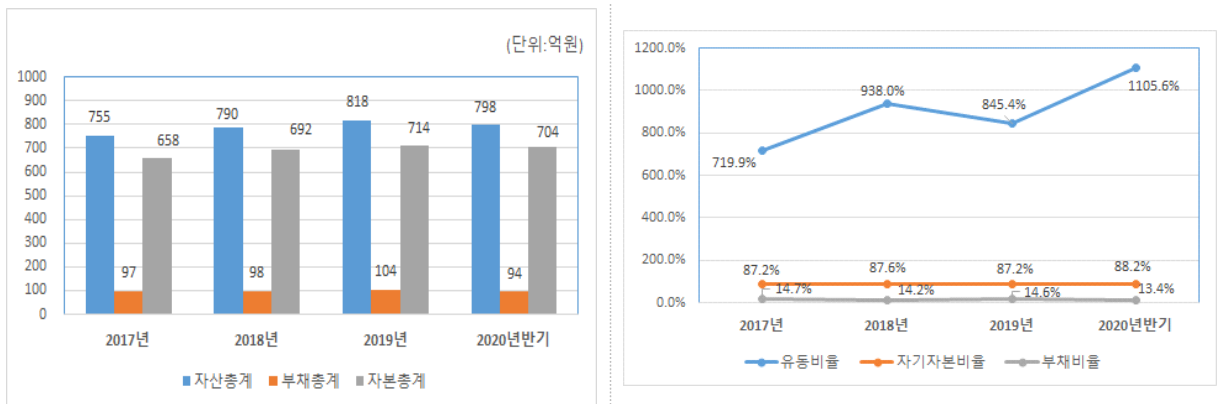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 2019년 매출 감소했으나, 양호한 수익구조 유지

동사는 2017년 209억 원(+25.5% YoY)에서 2018년 190억 원(-8.9% YoY), 2019년 185억 원(-3.0% YoY)의 매출을 시현한 가운데, 철도와 지하철, 경전철 전차선로용 금구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감소가 지속되었다. 한편, COVID-19 사태로 위축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교체공사 조기집행 가능성, 정부의 전철화 구축계획, 송전선의 경량화를 위한 신송전선 개발의 세계적 추세, 일부 국가의 포스트 COVID-19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생산시설 투자 가능성 등으로 관련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 16.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개별 기준)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8년 73.5%, 2019년 80.9%로 원가부담이 확대되었고, 수수료비용 증가 등에 따라 판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8년 17.3%, 2019년 9.1%로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산업평균 대비 양호한 영업수익성을 유지하였다.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에 따른 영업외수지 개선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이 2018년 18.9%, 2019년 18.5%를 기록하며 전년 수준의 양호한 수준의 수익구조가 유지되었다.

채무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입채무,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당기순이익 누적에 힘입은 자기자본 확충 지속으로 전년 수준의 양호한 채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14.6%, 자기자본비율 87.2%)를 기록하였다. 동사는 현금성자산이 125억 원, 단기금융상품이 93억 원, 유형자산 317억 원(토지 286억, 건물 23억) 등을 보유하고 있어 총부채 104억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단기적으로 풍부한 현금성자산, 보유 자산을 토대로 한 재무적 융통성, 우량 거래처 기반의 안정적인 영업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유동성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2020년 반기 매출 감소한 가운데, 영업수익성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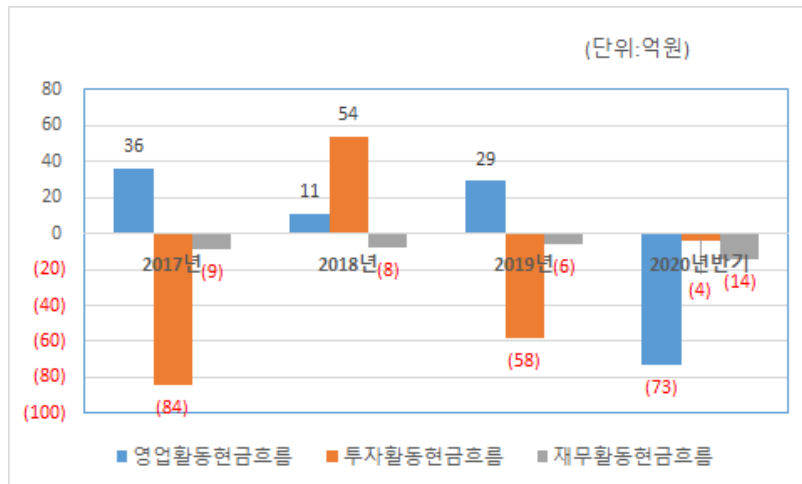
2020년 반기 송전선로와 고속철도 등 전차선로용 금구류 수주 부진한 가운데, 섬유직기용 색서날빔 수주도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한 69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원가 부담 확대와 외형 축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 전환한 매출액영업이익률 -1.5%를 기록했으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에 따른 영업외수지 개선으로 매출액순이익률 3.4%를 기록하며 흑자세를 유지한 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익구조를 나타내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13.4%, 자기자본비율 88.2%, 유동비율 1,105.6%를 기록하는 등 낮은 부채부담과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 중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시현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매입채무 증가 등으로 29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활동창출현금과 기보유현금 등으로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58억 원, 배당금 지급 등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6억 원의 자금소요를 충당한 바, 전기대비 34억 원 가량 현금성자산이 감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한 자금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17.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금구류 기술의 국산화 및 미래 기간산업에 따른 성장 기대

50년 이상의 기술 내재화를 통해 전력수송용 송전금구류의 자체 개발 및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전차선로 및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겨냥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기간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 뿌리 깊은 기술력과 국산화로 인정받은 명문장수기업

동사는 1962년 설립 이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전선로용 철탑 및 애자 금구류, 섹셔널빔 등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04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345kV, 765kV 송전선로용 무볼트형 스페이스 댐퍼 등 실용적이고 선진화된 금구류를 개발하여 송전선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350km/h급과 400km/h급 고속철도 전차선로자재 개발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 구간 선로자재를 공급하였다.

꾸준한 금구류 개발실적을 인정받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3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50년 이상 동안 쌓아온 뿌리 깊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호남선 및 수도권 GTX 건설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경전철 건설공사에 동사의 전차선로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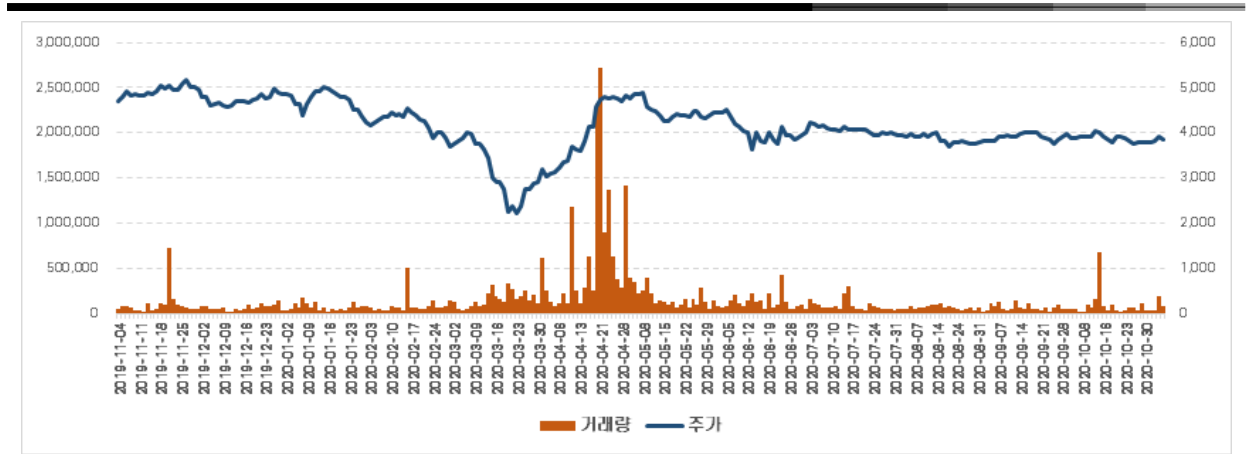
■ HVDC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여에 따른 긍정적 사업 전망

차세대 신송전 시스템으로 HVDC 가공송전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고창 전력시험센터에 알루미늄 파이프식 점퍼장치와 애자장치 금구류를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최초 도체귀로방식의 500kV HVDC 실증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향후 8GW의 대용량 송전선로로 건설될 신한울~신기평 HVD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기술개발 중이며, 이 기술개발이 성공할 시, 국가 기간 전력계통연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겨냥할 수 있기에 기업의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간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0.11.)